경제 혹한기 오나…광주·전남 생산·소비 '뚝'

●호남통계청 '11월 광주·전남 산업활동동향'

광공업 생산 전년比 광주 1.7%·전남 7.4%↓

대형소매점 판매도 나란히 9.7%·7.2% 줄어

지역 경제에 본격적인 혹한기가 오는 것일까.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광공업 생산과 대형소매점 판매 모두 1년 전보다 감소, 확연한 위축세를 보였다.

29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광주·전남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지역의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7%·7.4% 감소했다.

광주 광공업 생산이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은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전남은 지난 8월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전환,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하락을 이어나갔다.

지난달 광주지역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14.9%), 전자부품(6.0%), 섬유제품(59.3%) 등에서 증가했으나 전기장비(-35.1%), 금속가공(-11.9%), 1차금속(-13.7%) 등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남의 경우 기계장비(91.8%), 기타 운송장비(6.4%), 고무·플라스틱(10.6%)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부진으로 주력 생산품인 화학제품(-20.4%)을 비롯해 의약품(-95.1%), 식료품(-16.8%) 등에서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광공업 생산과 함께 출하도 줄어든 반면, 재고는 늘었다.

지난달 광주·전남 광공업 출하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5.1%·8.0% 감소했다. 재고는 광주 1.5%, 전남 7.2% 증가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도 양 지역 모두 나란히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달 광주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9.7% 감소한 95.1로 집계됐다.

지난 10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이 같은 감소폭은 2021년 1월(-10.6%) 이후 22개월 만의 최대치다.

특히 소매점 형태별로 희비가 갈렸는데 생필품인 음식료품 판매는 증가한 반면 신발·가방, 가전제품, 의복, 오락·취미·경기용품, 화장품 등 소비재는 모두 감소해 생필품 구매 비중이 큰 대형마트는 판매가 0.8% 늘어난 데 반해 백화점 판매는 무려 14.6% 줄어들며 지난 2020년 12월(-15.0%) 이후 23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전남의 경우 지난 1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가 75.7을 기록, 신발·가방, 가전제품 판매가 늘고 기타상품, 오락·취미·경기용품, 의복, 화장품, 음식료품에서 줄어들며 전년 동월 대비 7.2% 감소, 지난 7월(-4.3%) 이후 5개월 연속 소매판매 감소세를 피하지 못했다.

한편, 지난달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1.7를 기록, 전월보다 0.7포인트(p) 내리며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하락폭은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5월(-0.8p)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컸다. /양시원 기자

거리두기 해제…파티용품 수입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올해 들어 축하·파티용품 수입액이 역대 가장 많았다. 관세청이 발표한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11월 축하·파티용품 수입액은 6천400만달러로 작년 같은 시기보다 31.7% 증가했다. 사진은 대형마트에 진열된 축하·파티용품.

지역기업 성장성 '개선'…수익·안정성 '악화'

한은 광주전남본부 '2021년 기업경영분석'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기업의 성장성은 개선됐으나, 수익성과 안정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광주·전남지역 비금융 영리법인 6만1천435개(제조업 1만522개·비제조업 5만91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광주·전남지역 기업 경영 분석'에 따르면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 0.9%에서 11.4%로 상승했으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전년 4.9%에서 1.0%로 하락하고, 부채비율은 130.0%에서 144.9%로 상승했다.

전국의 매출액 증가율은 17.0%,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6%, 부채비율 120.3%로 전국 대비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에서 모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 증가율은 17.1%로 전년(-2.6%)보다 19.7%포인트(p) 상승했고 총자산 증가율은 12.1%로 전년(3.3%)보다 8.8%p 상승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3.7%→4.6%)과 매출액 세전순이익률(2.8% → 4.2%) 모두 전년 대비 상승했다.

부채비율은 125.9%로 전년(121.7%)보다 4.2%p 상승했으며 차입금 의존도는 33.1%로 전년(34.3%)보다 1.2%p 하락했다.

비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은 9.6%로 전년(2.1%)에 비해 상승했으나, 전국(16.2%)을 하회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전년 5.3%에서 -0.3%로 하락했고, 부채비율은 149.2%로 전년(131.8%)대비 높아졌다. /기수희 기자

제조업체 80% "내년 경제성장률 0.5-2.0% 이하"

광주상의 '2023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 조사

체감경기 '침체' 지속…국내경제 위협 1위는 '고물가'

광주지역 제조업체 10곳 중 8곳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0.5-2.0% 이하'로 전망했다. 또 2023년 1분기 경기전망지수가 기준치를 밑돌아 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공회의소(이하 광주상의)는 지난 1-14일 광주지역 123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BSI(기업경기실사지수·기준치=100) 전망치가 '72'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주요국의 고강도 통화긴축, 중국의 경기침체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위축된 데다 환율 및 물가 불안이 가중되면서 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 기업의 매출, 생산 등 주요 경영활동의 결과와 전망을 지수화한 지표로 BSI가 100 이상이면 전월보다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이하면 그 반대를 뜻한다.

이 지수는 기준치를 웃돌았던 지난해 3분기(117)와 비교하면 무려 45포인트(p) 낮고 올해 들어 가장 낮았던 3분기(75)보다도 3p 떨어지는 수치다.

올해 4분기 실적도 68에 그쳤다.

원자재 가격 상승, 수급 불안, 수출입 부진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내년 1분기 업종별로 IT·전기·전자(126)를 제외하고 식음료(70), 철강·금속가공(50), 기계·금형(74), 자동차·부품(59), 고무·화학(64) 등 대부분 업종이 기준치를 밑돌았다.

기업 규모별로 대·중견기업은 56, 중소기업은 74로 집계됐다.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은 각각 100과 65로 나타났다.

경영 실적에 영향을 준 국내외 요인으로 내수경기(38.2%), 원자재 가격(37.4%), 수출시장 경기(25.2%), 고금리(16.3%), 고환율(7.3%) 등을 들었다.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해 29.3%가 1.5-2.0%를, 26.0%는 1.0-1.5%, 22.0%는 0.5-1.0%를 예상했다.

내년 투자 계획으로 절반가량(50.4%)이 올해와 동일하다고 답했으며 축소는 35.8%, 올해보다 확대를 예상한 업체는 13.8%에 그쳤다.

국내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61.8%가 고물가·원자재를, 37.4%와 36.6%는 고금리와 고물가 지속을, 23.6%가 수출둔화 장기화를 들었다.

경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정부의 과제로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정책(52.8%), 환율 등 외환시장 안정(44.7%), 자금 조달시장 경색 완화(33.3%), 공급망 안정화(19.5%), 수출 및 기업활동 지원(18.7%) 등을 바랐다.

최종만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 둔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기업의 선제 대응과 정부의 안정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수희 기자

투데이 경제

한전KDN '사회적 약자 보호' 발대식

한전KDN은 지난 28일 감사실이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지역사회 사회적 약자 보호사업 발대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지난 7월19일 한전KDN과 한전KPS,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기관들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재가(在家) 지적장애인 주거지에 CCTV를 설치해 범죄피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수희 기자

한전KPS, 투명경영 실천 '내부통제 강화'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는 최근 나주 본사에서 김흥연 사장, 강동신 상임감사를 비롯한 간부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사-감 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전KPS는 선언식을 계기로 상시 점검·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규정과 매뉴얼 제정 등 체계 구축 및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김흥연 사장은 "공공기관의 경영 혁신과 재무 건전성이 강조되는 경영 환경에서 충실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비를 통한 선제적 위험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수희 기자

기아, '담원 기아 기부 캠페인' 모금액 전달

기아는 e스포츠 게임단 DWG KIA(이하 담원 기아)의 경기 성적과 연동한 친환경 기부 프로젝트 '담원 기아 스노우볼 기부 캠페인'으로 적립된 모금액을 (재)기후변화센터에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아 임직원의 모금액은 '2022 LoL 챔피언스 코리아' 기간 중 3월23일부터 8월21일까지 담원 기아 선수들의 경기 성적을 바탕으로 산정됐으며 기아 임직원은 각자 응원할 선수를 선택한 뒤 해당 선수의 경기 운영 지표에 따라 기부금을 모금했다.

이번 시즌에 모인 모금액은 총 9천400여만원이다. /기수희 기자